

2023 새해 이렇게

신우철 완도군수

“신성장 동력 해양 치유·바이오 산업 육성에 사활”



국립난대수목원·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관광객 500만 시대 열 것 해수 담수화 시설 등 가뭄 극복·촉촉한 복지·소상공인 지원 최선

“군민에게 더 큰 행복 전하는 희망 군정을 이끌겠습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새해 인터뷰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자는 뜻의 비도진세(備道進世)의 각오로 그동안 쌓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군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정을 이끌겠다”라고 강조했다.

신군수는 이어 “2023년은 그동안 다져놓은 기반 위에 더 많은 결실을 거두어 군 위상을 높이고 대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전력을 다해 군정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신 군수는 새해에는 군민에게 더 큰 행복을 전하기 위한 ‘희망 군정’을 이끌고, 군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완도만의 특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7대 핵심 사업 추진 계획과 기대 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7대 핵심 사업은 ▲해양치유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대규모 SOC 사업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5대 대규모 행사 개최 ▲가뭄 극복을 위한 대책 등이다.

신 군수는 우선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추진에 힘찬 뜻을 올려 완도의 미래 100년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진 전략으로 먼저 국내 최초로 5월 시범 운영되는 해양치유센터와 더불어 해양기후·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 운영에 박차를 가해 완도형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완도의 주요 수산자원인 해조류와 전복 등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은 공동 협력 연구소와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 등을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교통망을 확충하는 대형 SOC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 완도의 교통 지도가 바뀌고, 접근성 개선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군에서는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건설과 국도 77호선 선형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대형 국책 사업 2건 선정으로 군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으로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고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장보고 수산물 축제, 전남 정원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는다는 복안이다.

가뭄 장기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업도 추진한다.

50년 만의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으로 광역 상수도 설치, 금일동백리 수원지 신설, 고급 냇도 상수관로, 이동형 해수 담수화 설치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과 완도사랑상품권 지속 발행, 연근해 조업선단 유지 등을 통해 지역 경제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모두가 행복한 완도”를 만들기 위해 더 촘촘한 복지 정책을 실현할 생각이다.

생애 전 주기별 복지 정책을 더 두텁게 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모두가 행복한 완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계층별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고령자 복지 주택을 건립하고 목욕 및 이·미용권 확대 지원, 출산장려·양육비 지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오늘 5월, 군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전남도민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을 안전·경제 체전으로 개최해 지역 경제에 효과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 발전을 위해 군정에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면서 “새해에도 군민, 언론인과의 소통을 더 적극적으로 이어나가 모두가 잘사는 희망한 완도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전국 최초 마을방범 CCTV 관제 일원화

515개 마을 통합센터 연계 시스템 촘촘하고 강력한 사회 안전망 구축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마을방범 CCTV 관제를 일원화해 촘촘하고 강력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부터 관내 전체 515마을의 관제 시스템을 교체하고, 통합관제를 목표로 하는 마을방범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마을방범 CCTV와 군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여 매일 24시간 CCTV상황 관제를 실시, 사각지대 없는 마을 방범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515개 전체 마을에 연차적으로 1725대의 노후화된 CCTV의 교체 및 신규설치가 추진되며, 광케이블 전용망을 마을 단위로 구축하게 된다. 군과 마을간 전용 회선망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향후 마을에 CCTV 추가 설치시 별도의 비용없이 기존망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해남군 CCTV 관제센터.

구축하게 된다.

지난해 처음으로 44개 마을에 151대의 CCTV를 설치했으며, 시험단계를 거쳐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관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131개 마을, 2026년까지 전체 마을을 완료할 예정이다.

마을방범 CCTV의 관제 일원화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빈틈없는 관제망을 구축해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상황대응력을 향상시켜 마을 치안은 물론 주민 개개인의 안전 확보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박희서 기자 dia@kwangju.co.kr

현대삼호중 협력사 자재대금 설 전 조기 지급

300여 개사에 312억 규모

복지시설 등에도 물품 지원

현대삼호중공업이 민족의 대명절 설을 앞두고 지역 사회와 온정 나누기에 나선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사외 협력회사들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납품하는 자재대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말일(31일)보다 11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오는 20일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조기 지급 혜택을 받는 협력회사는 300여 개사로, 금액은 약 312억원에 달한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자재대금 조기 지급으로 협력회사 임직원 모두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어려움을 적극 살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동반 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은 설 명절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목포와 영암지역 사회복지시설 31곳과 소년소녀가장, 보훈가족 등에 지역상품권과 쌀, 생필품 등 2000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대 사장도 오는 18일 아동양육시설인 목포 아동원을 찾아 아동과 관계자를 위로하고 생필품 등 사랑의 물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영암 100경 찾기’ 공모전

49명 92점 접수 24점 수상

사진부문 최우수상 이진수씨

영상부문 최우수상 김경수씨

영암군이 ‘2022 영암 100경 찾기’ 사진·영상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월출산-영산강 비경, 고택 및 정자, 해돋이·해넘이 등 영암의 숨겨진 비경을 찾기 위해 처음 실시한 공모전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작품을 접수 받았다.

49명이 총 92점의 사진·영상작품을 출품했다. 지난달 27일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총 24점(사진 21, 영상 3)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사진부문에서는 월출산 천황봉에서 본 영암을 새벽야경을 촬영한 이진수 씨의 ‘새벽산행’이, 영상부문에서는 영암을 누릿재 일원을 촬영한



최우수상을 받은 이진수씨의 작품 ‘새벽산행’.

<영암군 제공>

김경수 씨의 ‘월출산자락 철지포포와 누릿재’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을 비롯한 수상작들은 영암군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군

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홍보 콘텐츠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영암 곳곳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기 위한 노력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설 명절 맞이 목포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카드형 31일까지·지류형 16~31일

목포시가 설 명절을 맞아 목포사랑상품권(사진)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

시는 카드형 목포사랑상품권은 지난 2일부터 31일까지, 지류형 목포사랑상품권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할인율을 6%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한다.

시는 지역경제의 타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소비자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등 명절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할인율을 확대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현금으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개인당 월 50만 원 내에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관내 농협, 광주은행, 수협, 축협, 신협 등 판매대행점인 56개 금융기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목포시 관내 가맹점 8,400여 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도모하며 호평을 얻고 있는 목포사랑상품권을 올해 800억 원 규모(지류형 300억 원, 모바일, 카드형 500억 원)로 발행한다.

특히 결제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상품권 사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월부터는 모바일 목포사랑상품권(QR결제형)을 도입한다.

/목포=정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농협진도군지부, 진도군에 농축산물 100세트

고령·취약계층 농업인 위해 기탁

농협진도군지부가 진도군에 우리 농축산물 꾸러미 100세트(총 6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사진>

진도군에 따르면 농협진도군지부는 고령농, 영세농 등 취약계층 농업인을 위해 흑돈불고기소시지 등 총 6개 품목의 축산물(6만원)로 구성된 농축산물 꾸러미 100세트(총 6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군은 기탁받은 농축산물 꾸러미를 7개 읍·면사

무소를 통해 농촌지역 고령, 취약계층 농업인들에게 전달했다.

농협진도군지부는 지난해 ▲사랑의 생수 전달 ▲농업인 행복콜센터 운영 ▲소화기 등 안전용품 전달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을 만들어 가고 있다.

주명규 지부장(농협진도군지부)은 “계묘년 새해를 맞아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농협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농축산물 꾸러미 100세트를 기탁했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j777@

세얼굴

“현장업무 역량 길러 신속·정확한 재난 대응”

박익승 목포소방서장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45대 목포소방서장에 부임한 박익승 서장은 “신속·정확한 재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 현장활동 중심의 훈련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안전사고 예방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직원들의 현장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무추진 능력을 인정받아 소방조직 내 신망이 두터웠다. /목포=박영길 기자 ky@kwangju.co.kr

재난대응 훈련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무안 출신인 박서장은 전남도 소방학교장, 무안소방서 서장 등을 역임했으며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소방업무 처리에 탁월한 업